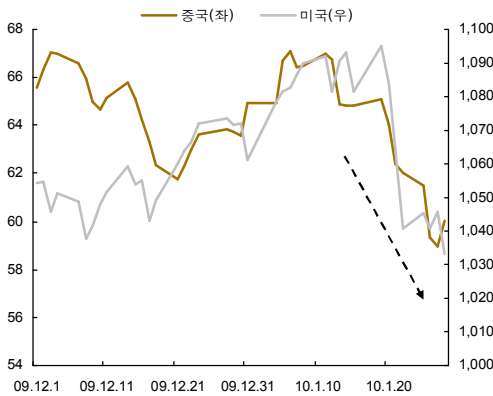


해외시장 전망

김혜준 _ 768-2855 _ hyejeon.kim@dwsec.com

수출 및 내수 호조로 인도네시아 상승, 반면 금리인상 및 미국 금융업 규제 우려로 인도 하락

긴축 우려로 하락하고 있는 중국 및 미국 주식시장



자료: Bloomberg, 대우증권

한 달 동안 선진국은 3.8%, 이머징은 3.2% 하락하여 이머징 보다 선진국이 저조하였다. 주요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2.3%), 러시아(+0.9%)만 상승하였고 반면 인도(-6.1%), 중국(-5.8%), 브라질(-2.9%)은 상대적으로 큰 하락 폭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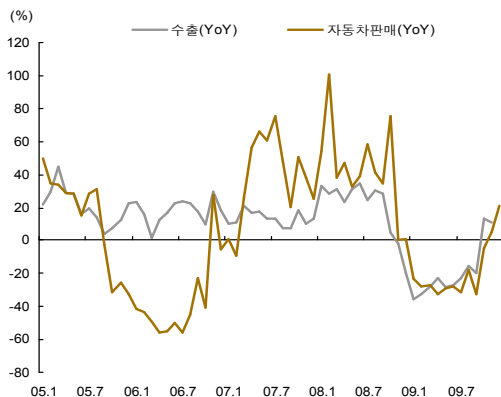
특히 중국은 18일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긴축정책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어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다. 한편 미국도 금융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축인 중국과 미국의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에도 인도네시아는 2.3% 상승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인도네시아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까지 (-)성장율을 보이던 수출이 10월 이후 두자릿수대의 (+)로 반전하였다. 한편 자동차 내수 판매도 11월에 (+)로 반전되었고 12월에는 21%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수출과 내수가 함께 성장하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인도는 가장 저조한 성과로 눈에 띈다.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4%에 달할 만큼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주식시장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다. 실제 인도 중앙은행은 1월 29일 지급준비율을 기존 5%에서 5.75%로 0.75%p 인상하였다. 한편 월 후반에는 미국의 금융권 규제에 대한 가능성이 인도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인도 증시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금 동향에 민감하여 미국 금융업 규제는 미국투자회사의 주가는 물론 인도 주식시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수출 및 내수 견조한 모습



자료: Bloomberg, 대우증권

미국 투자회사 지수와 인도 지수 하락

